광산구 '여름철 재난' 선제적 대응 나선다

'사람·공간·시간' 3대 키워드 중점
'슈퍼엘니뇨' 예상 폭염·폭우 전망
시민 안전·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여름철 무더위가 6월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광산구가 도심 열기를 낮추기 위해 살수차를 운행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가 여름철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부서·유관기관 협업과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람·공간·시간 등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맞춤 대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21일 광산구에 따르면 폭염·폭우 등 여름철이면 반복하는 각종 재난 상황을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슈퍼엘니뇨' 발생 예상에 따른 폭염과 폭우 등이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대응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기후위기로 매년 '역대급' 무더위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기상청은 올 여름이 평년(1991~2020년)보다 더 뜨거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비가 내리지 않아 극심한 가뭄 피해를 입은 지난해와 달리 올 여름에는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7월은 엘니뇨로 인해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확률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시민안전과를 중심으로 폭염·폭우 등 재난 재해별 각 부서의 역할·대응 매뉴얼을 체계화하고 있다.

광산구는 재난부서·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선제적 총력 대응'을 기조로 선제적 사전대비, 현장중심 초기대응, 내부역량 집중, 시민참여라는 4대 여름철 재난대응 핵심전략을 수립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도 사회적 약자, 사고 위험 지역, 취약 시간대 등 사람·공간·시간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광산구는 빈틈없는 상황관리, 꼼꼼한 현장 중심의 사전 대비, 촘촘한 분야별 안전 대책을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실시간 기상상황 모니터링 강화, 재난 정보의 신속한 보고, 전파 체계 구축 등을 통한 갑작스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난 예·경보시설 점검과 함께 인명피해 우려지역 일제조사, 지하차도 등 재해취약시설 점검·관리, 시설물 점검, 도로시설물과 배수로 사전 정비 등을 추진한다. 침수 위험지역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방재시설을 확충·정비하는 한편, 실제 재난 대응 시 효과적으로 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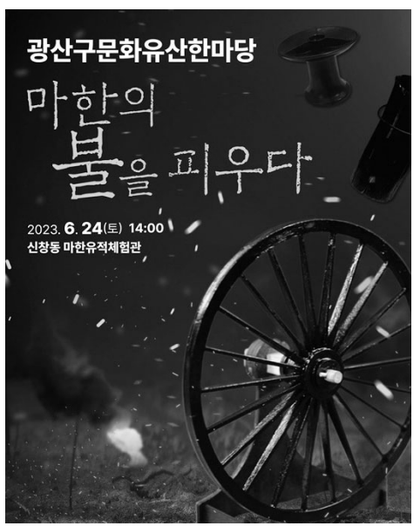
사회적 약자 보호 체계도 더욱 튼튼히 쌓고 있다. 온열질환자 모니터링, 홀몸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등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 건설공사장 실외노동자 대상 폭염 안전대책을 강화중이다. 취약계층의 무더위 쉼터 이용과 더불어 어린이 물놀이 시설 안전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폭염 저감시설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광산구는 그늘막 158개소(스마트그늘막 7개소 포함), 쿨링포그, 쿨루프 25개소, 무더위쉼터 433개소를 운영중이다. 도심 열섬 완화를 위해 살수차도 3대 운행한다. 시민 참여를 통한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도 확산한다. 자율방재단 등 안전단체와 연계해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안전신고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행정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면서 "지역의 다양한 기관,단체와의 연대,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마한의 불을 피우다' 광산구 문화유산 한마당

24일 신창동 마한유적체험관…마한광산 선포식·체험·공연



광주 광산구는 "오는 24일 신창동 마한유적체험관에서 광산의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전체를 한 곳에 모은 '광산구 문화유산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재를 향유 하는 '문화재 활용 1번지'로의 도약과 함께 광산구 신창동 유적을 마한의 대표 유적으로 각인하기 위한 것이다.

행사는 기존의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을 신창동 유적 맞춤형으로 선보이는 '화려광산존', 마한의 대표 유적을 활용하는 '마한광산존', 상시 체험 및 개별 문화재 안내를 위한 '모두광산존', 쉼과 휴식을 위한 '쉼터존' 등 4개 부문으로 꾸며진다.

'화려광산존'은 신창동에서 출토된 현악기 오토마타 체험 '시인의 사계', 장덕동 근대한옥의 고인돌 이야기를 들려줄 '고택의 사계', 고봉 기대승과 퇴계 이황의 우정을 다룬 연극 '월봉 로맨스', 고려시대 어의 체험 '사전약방문' 등 체험과 공연을 선보인다.

'마한광산존'에서는 마한의 생활상을 유쾌한 체험과 유익한 교육으로 만날 수 있다. 활비비 체험, 목궁 체험, 토제 목걸이 만들기, 바비큐 음식 체험, 토기 사용 시연과 더불어 유물모형을 관찰하고 토론하는 교육 프로그램 '상상 속 신창동 마을 여행'을 운영한다.

'모두광산존'에서는 현장 방문객을 위한 상시 체험과 문화재 개별 정보 등을 제공한다. 조선 선비의 유생복을 입고 전각을 새기는 '선비의 하루', 무형문화재와 함께하는 부채 만들기, 커피,전통차 체험인 '다시 茶時 카페', 용아생가 스탬프북 만들기, 장덕동 근대한옥 팝업북 만들기, 무양서원 '페이퍼 토이(종이 장난감)' 체험 등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

특히 이날 행사에선 빛고을 영무 농악의 흥겨운 무대로 '마한광산 선포식'을 개최한다. 현재의 광주를 만든 기원인 고대 마한이 남긴 신창동 유적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선언하는 자리로, 이를 상징하는 '마한의 불'을 지피는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마한광산 선포를 계기로 아시아 최대 농경 복합 유적지인 신창동 마한 유적지를 정비하고, 마한 역사문화 체험 콘텐츠를 개발해 차별화된 '마한광산' 브랜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참여 방법은 월봉서원 누리집(www.wolbong.org) 또는 광산구 관광육성과(062-960-889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은 19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근무평정 1순위 대거 탈락…광산구 승진인사 반발

"전형적인 줄 세우기식 불공정 인사" 조직 내 실망감 커져

민선 8기 광주 광산구가 인사 시스템을 무시하고 정기 인사를 단행해 상당수 조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광산구 내에선 이번 인사에 따른 거센 반발이 이어지면서,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공직 장악력을 떨어뜨리는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등이 나오고 있다.

21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16일 4급 2명과 5급 7명, 6급 3명, 7급 10명, 8급 17명의 공직자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승진 인사에서 직렬별 근무평정 1순위였던 공직자 대부분이 제외되면서, 공직 내부 인사관리시스템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구청장 최측근으로 이름을 올린 직원들이 연공 서열을 무시하고 대거 승진 대열에 합류하면서, 승진 인사의 신뢰성도 급락하는 분위기다.

실제 박병규 구청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A사무관(행정직)은 광주시에서 전입한 지 1년도 안돼 서기관으로 승진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5급 승진자 중 직급별 근무평정에서 1등을 받았던 상당수 공직자가 후 순위로 밀려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되면서, 인사관리시스템의 무용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사례는 하위직인 6·7급 승진 인사에서도 반복되면서, 하위직 직원들마저도 이번 인사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박병규 구청장이 취임 후 '일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을 발탁·승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조직 내 실망감은 더 커지고 있다.

광산구의 한 6급 직원은 "그동안 각 직급의 직렬에서 1순위 근무평정을 받았던 공직자가 이번과 같이 대거 승진에서 제외된 경우가 전혀 없었다" 며 "전형적인 줄 세우기식 불공정한 승진발령"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6급 직원도 "공직내부 승진 발령은 인사관리시스템에 따라 충분히 예측 가능해야 후유증이 남지 않는다"면서 "이번 승진 인사는 (박병규)구청장의 정무라인이 밀실에서 결정한 인사 전횡으로 판단된다"고 반발했다.

이와관련해 광산구 관계자는 "기존에도 근무평정 1순위가 승진에서 제외된 사례는 있었으며, 승진 인사 때마다 후유증은 있기 마련"이라고 해명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최우수

복지부 장관상…건강 격차 해소·보건복지 연계 강화 평가

광주 광산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게됐다"고 21일 밝혔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건강과 관련해 주민이 겪고 있는 문제, 요구 등을 반영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이다. 전국 시·도 및 일선 시·군·구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중장기 계획(4년 단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제8기 중장기(2023~2026)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23년 시행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지자체 16곳을 발표했다. 광주에서는 광산구가 가장 높은 점수로 유일하게 최우수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광산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 방안 및 외주인 주민을 위한 건강관리, 보건-복지 연계 강화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광산구는 미래위기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강화, 평생건강 관리체계 구축, 지역 자원 연계·협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3개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11개 추진과제, 43개 세부과제로 주민의 건강한 삶을 뒷받침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감염병, 재난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세밀하고 꼼꼼한 보건 체계를 세우고, 시행해 온 광산구의 노력이 큰 빛을 발하고 있다"며 "'함께 누리는 평생 건강도시'라는 비전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